

Kafka에 있어서의 「法」과 「官廳機構」

孫 永 林

Über „das Gesetz“ und die Bürokratie“ in Kafkas Werken

Son, Yeong-Lim

〈 目 次 〉

- | | |
|--------------------|---------|
| 1. 序 說 | 5. 結 論 |
| 2. 『訴訟』에 있어서의 官廳機構 | 略 字 表 |
| 3. 『城』에 있어서의 官廳機構 | 參 考 文 獻 |
| 4. 官僚政治 | |

Zusammenfassung

Es handelt sich bei diesem Aufsatz um die Zusammenhänge des „Gesetzes“ und der „Bürokratie“ in Kafkas Werken. Diese Zusammenhänge sind besonders in seinen großen Romanen „der Prozeß“ und „das Schloß“ gestaltet.

Im Roman „Der Prozeß“ etwa reden alle Personen vom merkwürdigen Prozeß wie von etwa Selbstverständlichem und Wirklichem, und auch die sonderbaren Vorgänge, Gerichtsverhandlungen, Gerichtsstuben und Kanzleien werden geschildert wie etwa ganz Natürliches und Alltägliches mitten in einer modernen Großstadt mit Bankhäusern, Telefonen und Mietskasernen, obgleich doch diese Vorgänge allen gewohnten Erfahrungen und Wirklichkeiten Hohn sprechen, so daß der Leser bis zum Schluß nicht weiß, was eigentlich diese merkwürdigen Gerichtsverfahren und unabsehbaren Behörden bedeuten, wovon hier ständig geredet wird, was es mit dem Prozeß auf sich hat, um welche Anklage es sich dreht usw. Die erstaunliche Präzision, mit der alle Einzelheiten des Gerichtsverfahrens erläutert und durchreflektiert, alle Lokalitäten dieses Gerichts beschrieben werden, steht in einem grotesken Mißverhältnis zum Sinn des Ganzen, der nirgends aufgeklärt und formuliert wird.

Das Leben selbst in diesem Roman hier ist das Gericht und es ist ein unsichtbares Gericht. Das Leben selbst macht schuldig, der Zwang, existieren zu müssen.

Die Parabel „Vor dem Gesetz“ in diesem Roman gibt so wenig Aufklärung über den eigentlichen Sinn, der hinter dem Prozeß steht, wie der Roman selbst. Nach wie vor bleibt dunkel, was „das Gesetz“ eigentlich ist, in das der Mann vom Lande eindringen will, worin die Ordnungen und Satzungen dieses Gesetzes bestehen, was das Gesetz gebietet oder verbietet, warum überhaupt der Prozeß läuft, worin die Anklage besteht, was Schuld oder Unschuld ist usw.

Das Gesetz im „Prozeß“ ist eben das Gesetz, nicht mehr und nicht weniger. Es etwa mit dem jüdischen Gesetz oder mit Gott oder mit dem chinesischen Begriff des Tao usw. zu identifizieren, führt aus dem Werk heraus. Nur wenn alle Aussagen im Werk über das Gesetz gelesen und im Zusammenhang interpretiert werden, läßt sich eine gültige Bestimmung dessen erreichen, was im „Prozeß“ das Gesetz ist.

Kafka hat auch in den Bürokratien des „Schloß“-Romans ein Bild alltäglicher Erfahrung gestaltet: die unabsehbaren Zufälle, Zusammenhänge, Motive, Einflüsse, Beurteilungen, Gesichtspunkte usw., die das Leben eines jeden Menschen mit und ohne sein Wissen bestimmen. Jeder ist dieser unendlich und rastlos arbeitenden Weltapparatur verfallen. Und jedes einzelne Organ dieser Behörde korrigiert und kontrolliert notwendigerweise jedes andere Organ, denn alles steht doch mit allem in Verbindung.

Die zwei Welten, die bei Kafka nie einander verstehen können—die Behörden und K. („Prozeß“ und „das Schloß“)—sind also keine willkürliche oder phantastische Konstruktion Kafkas, sondern sind unsere Wirklichkeit selbst. Im Grunde sind sie eine einzige Welt, eben die menschliche. Es ist der Inbegriff alles dessen, was von Menschen gelebt, gefühlt, gedacht, vorgestellt und getan wird, so wie die Gerichts- und Schoßbehörden in Kafkas Romanen in unaufhörlicher Bewegung alles notieren und protokollieren, was überhaupt von Menschen gelebt wird.

In der besinnungslosen Jagd purer Vermittlungsarbeiten des „Prozeß“- und „Schloß“-Romans gibt es keine unmittelbar und selbstständig einwirkende Person mehr, und dementsprechend auch keine unmittelbar eingreifende höchste gesetzgebende Instanz. Die Vermittlungsorgane verselbständigen sich zu anonymen, alles beherrschenden Mächten, die grenzenlos sich vermehren und das Leben des Menschen bestimmen,

die zugleich damit selbst zu anonymen Massen herabsinken, die blind dirigiert werden nach Gesetzen, die den Vollzugsorgane selbst unbekannt, selbst unüberschaubar sind, ja sogar über die Vollzugsorgane hinweggehen, diese Organe mit dirigieren und beherrschen.

I. 序 說

一般的으로 法이란 社會生活의 秩序를 維持하고 그 構成員 相互間의 關係를 規律하기 위해 어떤 強制權能에 의하여 그 効力이 確保된 規範의 體系를 이룬다. 廣義의 法概念은 法令, 命令, 그 밖에 道德律과 慣習까지도 包含시키므로 社會가 있는 곳엔 반드시 法이 있다는 表現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狹義의 法概念은 內面的, 個人的, 非強制的 道德에 대해 外面性, 社會性, 특히 強制可能性을 갖춘 社會統制를 위한 規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道德이 마지막 保壘를 個人的 內面的 良心에 求하는데 반하여 法은 社會의 要求에 대한 服從을 優先적으로 強要하고 그것을 遵守치 아니하거나 違反할 때는 궁극적으로 組織的인 權力을 發動할 수 있는 可能性을 항시 留保한다.

近代國家의 莫強한 統一的 權威와 그 權力裝置를 背景으로 삼는 近代法은 이 法의 本質의 性格을 가장 明白하게 나타내고 있다. 近代에 이르러 비로소 法이 道德, 宗教, 慣習等, 다른 여러 가지 規範으로부터 分離되어 獨自的인 存在領域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一般的으로 法律이라 하는 것은 後者, 即 狹義의 法을 이르고 있는 것이다.

法, 法律(Recht)에 대하여 律法(Gesetz)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교에서 重要視되는 概念이다. Mose의 十戒를 비롯하여 舊約聖書 全體도 典型的인 律法이라 할 것이다.

유대교는 律法의 基礎위에 成立되어 있다. 律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神의 命令의 具體的인 表現인 동시에 絕對的 服從을 要求하고 있다. 律法은 自然的 法則이나 理性的 法律과도 다르며, 超越的인 神의 命令이라는 點에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Kafka는 可恐할 偶然的 源泉인 豫測할 수 없는 것을 支配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알 수 없는 必然性的 集合을 法이라 했다. Kafka의 法에는 로마法的인 政治的 現世法과 유대教的인 宗教的 超越法의 兩面이 있긴 하나 그 實體는 現世의 人間生活과 人間의 마음을 支配하고 있는 不文法으로서 特定한 宗教的 내지는 政治的 成文法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法에 만약 立法者가 있다면 대체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 『Milena에의 便紙』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Dilemma의 拷問의 考案者나,

人間의 系統的 解體의 加害者와 同類¹⁾의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神보다도 惡魔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訴訟』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寓話 「法 앞에서 / Vor dem Gesetz」에서도 Kafka는 法の 나라에서의 支配者의 存在에 관해선 전혀 言及하고 있지 아니하다.²⁾

그럼에도 Kafka의 作品에는 到處에 裁判官(Richter)이 있으며, 또 假借없는 刑을 執行하고 있다. 그것은 時空을 超越한 審判의 世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法廷에 대해 斷罪를 받는 人間은 絶望의 으로 鬪爭한다. 正體不明의 律法機構와 官廳機構가 도사리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고한 人間을 무자비한 합정 속으로 몰아 넣는다.

『城』에 있어서도 마을을 支配하고 있는 正體不明의 城의 官廳機構 역시 그 命令은 一方的으로 下達되고 있을 뿐 下位上達의 길은 전적으로 斷絶되어 있다. 게다가 城 그 自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完全히 隔絶되어 있다.

『訴訟』과 『城』의 官廳機構는 하나의 仲介機關으로서, 이들 仲介的 業務의 狂奔 속에서는 直接的으로나 自主的으로 影響力을 미치는 人格은 存在치 않으며, 直接的으로 干涉하는 立法的 最終審도 存在치 않는다. 仲介機關은 獨立化하여 모든 것을 支配하는 匿名의 權力이 되고, 이 權力은 無限히 增大하여 人間의 生活을 規定하고 나아가 스스로 匿名의 集團으로 零落한다. 또한 이 零落한 權力은 그 執行機關 自體마저도 알지 못하는 無邊의 것이 되고, 심지어는 그 執行機關을 輕視하여 그것을 管理하고 支配하는 바, 영문을 알 수 없는 諸法則의 管轄下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기 위하여 스케치를 한 장 동봉합니다. 네 개의 기둥이 있고 안쪽의 두 개에는 장대가 통해져 있고, 여기에 <죄인>의 두 손이 묶입니다. 바깥쪽의 두 기둥을 통하는 장대에는 발을 묶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묶이면 장대는 서서히 밀려나 남자는 가운데서 두 쪽으로 찢깁니다. 둥근 기둥에는 이 설비의 발명자가 기대 서서, 마치 전체가 본인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하는 양, 거드름을 피는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포개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장을 빼낸 돼지를 진열대에 벌러놓는 푸줏간의 흉내를 낸테 불과합니다.」(M. 176) 및 本大學 論文集 第19輯 S.149 以下 參照.

2) Emrich 教授는 그의 大著 『Kafka 論』에서 이에 대해 詳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에컨데 寓話 <法 앞에서>에 대한 Kafka 自身の 詳細한 解說中에는, 이 이야기에 登場하는 個個人物이나 事象이 분대 무엇을 意味하며, 그것들의 보다 깊은 精神的, 比喩的 內지는 寓話의 <意義>가 무엇이며, 문지거나 시골서 온 남자 등이 轉義的으로 누구를 뜻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마디의 言及도 없는데다 暗示마저 全無하다는 事實이다. Kafka에 의해 詳細하게 解釋되고 있는 점은 이들 登場人物들의 行動, 相互關係, 相互間의 位階秩序 따위 뿐이다. 그들이 서로 속이고 있는 건지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행동이 正當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自由롭게 生活하고 行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 모두가 疑問 투성이다. 그리하여 이 疑問은 矛盾투성으로 답하여지고 온갖 解釋의 可能性도 解決되지 않은 채 放置되고 있다…… 이 寓話는 『訴訟』이라는 小說 全體가 提示하고 있는 것과 같은 問題, 事件, 矛盾, 不確實性을 단지 壓縮된 形式만으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寓話는 訴訟의 <背後>에 있는 <本來的인> 意味에 관해서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Emrich :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S.76 (以下 『Emrich』라 함)

die zugleich damit selbst zu anonymen Massen herabsinken, die blind dirigiert werden nach Gesetzen, die den Vollzugsorgane selbst unbekannt, selbst unüberschaubar sind, ja sogar über die Vollzugsorgane hinweggehen, diese Organe mit dirigieren und beherrschen.

I. 序 說

一般的으로 法이란 社會生活의 秩序를 維持하고 그 構成員 相互間의 關係를 規律하기 위해 어떤 強制權能에 의하여 그 効力이 確保된 規範의 體系를 이룬다. 廣義의 法概念은 法令, 命令, 그 밖에 道德律과 慣習까지도 包含시키므로 社會가 있는 곳엔 반드시 法이 있다는 表現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狹義의 法概念은 內面的, 個人的, 非強制的 道德에 대해 外面性, 社會性, 특히 強制可能性을 갖춘 社會統制를 위한 規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道德이 마지막 保壘를 個人的 內面的 良心에 求하는데 반하여 法은 社會의 要求에 대한 服從을 優先적으로 強要하고 그것을 遵守치 아니하거나 違反할 때는 궁극적으로 組織的인 權力을 發動할 수 있는 可能性을 항상 留保한다.

近代國家의 莫強한 統一의 權威와 그 權力裝置를 背景으로 삼는 近代法은 이 法의 本質의 性格을 가장 明白하게 나타내고 있다. 近代에 이르러 비로소 法이 道德, 宗教, 慣習等, 다른 여러 가지 規範으로부터 分離되어 獨自的인 存在領域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一般的으로 法律이라 하는 것은 後者, 即 狹義의 法을 이르고 있는 것이다.

法, 法律(Recht)에 대하여 律法(Gesetz)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교에서 重要視되는 概念이다. Mose의 十戒를 비롯하여 舊約聖書 全體도 典型的인 律法이라 할 것이다.

유대교는 律法의 基礎위에 成立되어 있다. 律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神의 命令의 具體的인 表現인 동시에 絕對的 服從을 要求하고 있다. 律法은 自然的 法則이나 理性的 法律과도 다르며, 超越的인 神의 命令이라는 點에 그 特色이 있는 것이다.

Kafka는 可恐할 偶然의 源泉인 豫測할 수 없는 것을 支配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알 수 없는 必然性의 集合을 法이라 했다. Kafka의 法에는 로마法的인 政治的 現世法과 유대적인 宗教的 超越法의 兩面이 있긴 하나 그 實體는 現世의 人間生活과 人間의 마음을 支配하고 있는 不文法으로서 特定한 宗教的 내지는 政治的 成文法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法에 만약 立法者가 있다면 대체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 『Milena 에의 便紙』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Dilemma의 拷問의 考案者나,

人間的 系統的 解體의 加害者와 同類¹⁾의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神보다도 惡魔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訴訟』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寓話 「法 앞에서 / Vor dem Gesetz」에서도 Kafka는 法の 나라에서의 支配者의 存在에 관해선 전혀 言及하고 있지 아니하다.²⁾

그럼에도 Kafka의 作品에는 到處에 裁判官(Richter)이 있으며, 또 假借없는 刑을 執行하고 있다. 그것은 時空을 超越한 審判의 世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法廷에 대해 斷罪를 받는 人間은 絶望의 으로 鬪爭한다. 正體不明의 律法機構와 官廳機構가 도사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고한 人間을 무자비한 합정 속으로 몰아 넣는다.

『城』에 있어서도 마을을 支配하고 있는 正體不明의 城의 官廳機構 역시 그 命令은 一方的으로 下達되고 있을 뿐 下位上達의 길은 絶對적으로 斷絶되어 있다. 게다가 城 그 自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完全히 隔絶되어 있다.

『訴訟』과 『城』의 官廳機構는 하나의 仲介機關으로서, 이들 仲介의 業務의 狂奔 속에서는 直接的으로나 自主의 으로 影響力을 미치는 人格은 存在치 않으며, 直接的으로 干涉하는 立法的 最終審도 存在치 않는다. 仲介機關은 獨立化하여 모든 것을 支配하는 匿名의 權力이 되고, 이 權力은 無限히 增大하여 人間의 生活을 規定하고 나아가 스스로 匿名의 集團으로 零落한다. 또한 이 零落한 權力은 그 執行機關 自體마저도 알지 못하는 無邊의 것이 되고, 심지어는 그 執行機關을 輕視하여 그것을 管理하고 支配하는 바, 영문을 알 수 없는 諸法則의 管轄下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기 위하여 스케치를 한 장 동봉합니다. 네 개의 기둥이 있고 안쪽의 두 개에는 장대가 통해져 있고, 여기에 <죄인>의 두 손이 묶입니다. 바깥쪽의 두 기둥을 통하는 장대에는 발을 묶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묶이면 장대는 서서히 밀려나 남자는 가운데서 두 쪽으로 찢깁니다. 둥근 기둥에는 이 설비의 발명자가 기대 서서, 마치 전체가 본인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하는 양, 거드름을 피는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포개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장을 빼낸 돼지를 진열대에 벌려놓는 푸줏간의 흥내를 낸데 불과합니다.」(M. 176) 및 本大學 論文集 第19輯 S. 149 以下 參照.

2) Emrich 教授는 그의 大著 『Kafka 論』에서 이에 대해 詳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에컨데 寓話 <法 앞에서>에 대한 Kafka 自身の 詳細한 解說中에는, 이 이야기에 登場하는 個個의 人物이나 事象이 본래 무엇을 意味하며, 그것들의 보다 깊은 精神的, 比喩的 내지는 寓話的 <意義>가 무엇이며, 문지기나 시골서 온 남자 등이 轉義的으로 누구를 뜻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마디의 言及도 없는데다 暗示마저 全無하다는 事實이다. Kafka에 의해 詳細하게 解釋되고 있는 점은 이들 登場人物들의 行動, 相互關係, 相互間의 位階秩序 따위 뿐이다. 그들이 서로 속이고 있는 건지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행동이 正當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自由롭게 生活하고 行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 모두가 疑問투성이다. 그리하여 이 疑問은 矛盾투성이로 答하여지고 온갖 解釋의 可能性도 解決되지 않은 채 放置되고 있다…… 이 寓話는 『訴訟』이라는 小說 全體가 提示하고 있는 것과 같은 問題, 事件, 矛盾, 不確實性을 단지 壓縮된 形式만으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寓話는 訴訟의 <背後>에 있는 <本來的인> 意味에 관해서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Emrich :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S. 76 (以下 『Emrich』라 함)

2. 『訴訟』에 있어서의 官廳機構

『訴訟 / Der Prozeß』은 裁判上の 訴訟이라는 主題를 통해 삶에서 疎外當한 人間の 적나라한 모습과 그 孤獨, 不安, 絶望, 矛盾 等の 實態를 남김없이 드러내어 現代人을 무자비하게 審判하고 있다. 거기에는 怪常한 召喚과 審問, 그리고 有罪判決과 刑執行이 일사불란 進行된다. 法廷은 人生의 맨 밑바닥의 場所에서 열리고 被告나 罪人도 零細民이거나 보잘 것 없는 弱者의 部類들이다. 法廷의 尊嚴性은 누구도 抗辯할 수 없는 神聖不可侵의 높은 곳에 있다. 여기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이 奇妙한 訴訟에 대해 自明한 現實의 事象인양 말하고 있으며, 不可解한 事件이나 審理, 法廷, 事務局은 물론이려니와 到處에 銀行이나 아파트가 즐비해 있는가 하면, 電話가 四通八達 이어지고 있는 現代의 大都市 한 복판에 있는 평범한 日常茶飯事인양 叙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事象은 一切의 通常的 經驗이나 現實을 嘲弄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叙述되고 있는지, 訴訟의 目的이 무엇이며 어떠한 告發이 문제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끝내 뒀하나 알 수가 없다. 裁判手續의 온갖 細部가 상세히 說明되고 빈틈없는 省察이 가해 지는가 하면, 또한 이 裁判所의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記述되고 있는 놀랄만한 精密性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뒀 하나 종잡을 수 없는, 全體의 意味와는 grotesk 하기까지 한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訴訟』 第9章 〈聖堂에서〉는 神父 / der Geistliche가 主人公 Josef K.에게 寓話 「法 앞에서 / Vor dem Gesetz」의 시골남자와 문지기 / der Türhüter와의 對話를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선 法の 나라에 들어가려는 시골남자를 문지기가 〈지금은 入國이 許容되지 않는다〉(P.155 參照)고 拒絕하고 있다. 만약 法이 萬人에게 公正한 것이라면 누구든 언제라도 受容됨이 마땅하거늘 그 사나이에겐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入國이 許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다 지쳐 죽고 말지만, 죽음 직전에 門에서 새어나오는 한가닥 빛 / ein Glanz을 사나이는 瀕死의 눈으로 바라본다. 자기 외엔 이 門을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疑訝해 하는 사나이에겐 문지기는 〈이 門은 너만을 위한 門이기 때문〉(P.156 參照)이라 답하곤 門을 닫아 버린다. 더우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문지기 / Türhüter와 對照的인 것은 누구나 지나가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는 「斷章 / Fragmente」에서의 문지기 / Wächter³⁾지만 그것이 과연 默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3) 「난 첫번째 문지기 걸을 지나쳐 버렸다. 뒤늦긴 하나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문지기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결눈질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곳을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지기는 멍한 눈초리로 잠자코 있었다. ‘이래선 안 되었을 테죠’하고 난 말했다. 문지기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그렇게 잠자코 있는 것은 통행을 허락하는 겁니까?’……」(Hl. 260 參照)

神父로부터 이 寓話를 들은 Josef K. 가 그 사나이는 속임수에 빠진 것이라 말하자 神父는 온갖 解釋의 可能性을 일러준다. 문지기가 지금은 許容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나 將來엔 許容될 可能性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였다곤 할 수 없다. 문지기는 그 사나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忍耐力과 同情心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속임수를 당한 것은 문지기 쪽이라는 註釋者도 있다고 말한다. 또 문지기가 최후에 門을 닫았다고 하나 律法의 門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지기는 아무 것도 모르며, 동시에 그 사나이가 죽어 문지기보다도 優位에 있다는 說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法의 權威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라는 反對論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P. 156~160 參照)

이 寓話는 『訴訟』이라는 小說과 마찬가지로 訴訟의 背後에 있는 本來的인 意味에 관해선 言及이 없다. 시골남자가 들어가려는 法 / Gesetz 은 원래 무엇이며, 이 Gesetz의 法規나 法令의 本質은 무엇이며, 이 Gesetz가 무엇을 命令하고 무엇을 禁止하며, 왜 訴訟이 일어나며 告發은 무엇에 의한 것인지, 또 무엇이 罪며 무엇이 無罪인지 그지 애매모호할 따름이다. 이러한 表現은 Kafka가 자신의 作品에 대한 解釋法의 見本을 提示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解釋의 可能性을 考慮하여 항상 問題를 表裏의 兩面에서 觀察함으로써 자신의 作品에 대한 一方的인 斷定을 함부로 지울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法은 萬人에 平等해야 한다는 사나이의 생각과 門이 그 사나이만의 것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矛盾되고 있으며, 形而上學的 問題에 있어서의 普遍性과 個別性的 Dilemma를 露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우기 法律家의 法令解釋만큼 이러한 Dilemma的 解釋의 表現에 適合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法學博士인 Kafka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그가 이를 교묘히 利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Brod는 『城』의 初版後記에 이렇게 쓰고 있다.

「『訴訟』과 『城』에 있어서는 神性(Kabbala - 헤브라이神祕說 -의 意味에 있어서의)의 두 가지 現象形式 - 審判과 恩寵 -이 描寫되고 있다.」⁴⁾

그러나 Walter Benjamin은 『城』은 恩寵, 『訴訟』은 審判이라 表現하는 Brod의 信仰的 解釋을 일찌기 否定하여 <이 解釋은 安易하다. 그러나 그것이 維持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推進되면 되는 만큼 더 한층 明白해진다>⁵⁾고 말하고 있으며, Emrich는 더더욱 強硬하고 辛辣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4) 「Somit wären im »Prozeß« und im »Schloß« die beiden Erscheinungsformen der Gottheit (im Sinne der Kabbala) - Gericht und Gnade - dargestellt.»(S.303)

5) Walter Benjamin: Schriften, Bd. 2: Franz Kafka,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55, S. 215.

「例컨대 『城』이 〈恩寵〉으로 해석되는 따위의 일들이 있으나, 이처럼 作品 그 自體 안에서 定式化되지 않고 作品의 外部에 있음직한 그 어떤 意味나 概念에 그것들을 끌어들이 解釋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런 式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訴訟』에 있어서의 〈Gesetz〉는 Gesetz 그 自體이며 그 以上の 것이거나 그 以下の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을 예컨대 유태교의 Gesetz라든가, 아니면 神이나 中國의 道의 概念 등과 同一視하는 것은 作品中에서 우리들 讀者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Gesetz〉에 관한 作品中의 모든 意見을 읽고 그 脈絡 속에서 해석할 때 비로소 『訴訟』에 있어서의 Gesetz의 眞相을 올바른 妥當性을 갖고 規定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非本來的이라 생각되는 意見이나 形象은 本來的인 것이다. 다만 이들 意見이나 形象의 本來的인 意味를 올바르게 規定하는 데는 모든 意見의 올바른 脈絡을 求함으로써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⁶⁾

이러한 意味에서 Brod의 〈審判〉이라는 解釋보다는 〈訴訟〉으로 번역되는 것이 當然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Benjamin의 指摘처럼 Brod의 解釋이 〈安易〉한데다 一面的인 것이며, 또한 原名의 意味가 『訴訟』인 것이 分明할 뿐만 아니라 作品의 內容도 裁判 自體보다는 刑事나 民事라고도 할 수 없는 不可解한 訴訟과 正體不明의 法廷에 의한 裁判에 대한 主人公 K.의 抗訴過程에 重點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審判』이라는 解釋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訴訟』의 背後에 뒷받침되고 있는 最高裁判所나 城의 官吏가 그 形而上學的 世界에 대하여 어떠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지는 分明하지 않으며, 律法의 나라는 베일에 가린 채 안개 속에 完全히 隔絶되어 있기 때문이다.

1917年 10月の 日記에서 Kafka가 〈내겐 人間이 행하는 審判만이 문제다〉⁷⁾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作品中의 訴訟過程이나 官廳機構는 그것이 제아무리 非現實의인 印象을 주는 形態의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實體는 人間社會와 人間の 마음을 支配하고 있는 現實의인 힘인 것이다. 『訴訟』中の 더러운 아파트의 一室에서 正體를 알 수 없는 群集에 의해 행해지는 秘密裁判이나 人民裁判과도 類似한 審理⁸⁾는 그 本質에 있어서 民衆의 마음을 支配하는 mechanism의 現實의이고도 생생한 機能作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訴訟』의 裁判官들, 下級裁判官이나 上級裁判官, 秘書 등의 看過할 수 없는 教權的 組織 / Hierarchie, 그들은 訴訟의 매듭을 지우지 못하고 어떠한 訴訟도 계속 未決狀態로 남겨두고 있다. 그들 자신이 訴訟에 決定을 내릴 수가 없으며, 또한 上級監督官에게 從屬되어 있다는 따위의 理由이긴 하나 이 Hierarchie는 自動的으로 無限히 增大해가는 現代의 仲介過

6) 前出 『Emrich』 S. 78~79.

7) 「Zusammengefaßt kommt es mir also nur auf das Menschengericht an.」(T. 390)

8) P. 28~40, 第二章 첫번째 審問 參照.

程에 比喩되는 것이다. 그는 Milena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래도 잘 理解가 가지 않아 결국 推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이런 일들에 관해선 누구나가 단지 〈國民大衆〉일 수밖에 없습니다. 國民大衆이 없으면 戰爭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일어나는 事件에 영향을 미치곤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發言權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現實的으로 일에 대해 判斷과 決定이 내려지는 것은 오로지 헤아릴 수 없는 體制를 지닌 教權的 審理組織 / Hierarchie der Instanz 에 있어서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실제로 發言에 의해 事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때부터 損害밖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아무튼 事情에 통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自制力이 없고 잠꼬대같은 것인데도 세상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 諺者들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挑發行爲에 動하지 않는 平靜하고 品位있는 生活態度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세상에선 온갖 일들이 挑發합니다. 길다란 運河가에서 당신이 앓을 풀마저도.」⁹⁾

『訴訟』에 있어서의 法이란 실제로 民衆의 마음을 支配하고 있는 法으로서, 그것이 申의 法과의 關係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K.의 追求가 始作되고 있는 것이다. 『訴訟』의 序頭에서 다음과 같은 수작이 오가고 있다.

「우리 관청은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선, 물론 난 가장 말단에서 일하는 패거리밖에 모르지만, 주민들 중에서 어떤 범죄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도 있다시피 죄에 끌려 들어가 우리들 감시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게 법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어디 잘못된 점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런 법따윈 난 모르오.」

「그러니까 자넨 더욱 곤란한 거야.」

9) 「Es sind doch Dinge, die man nicht ganz verstehen, die man letzten Falls nur erraten kann, Dinge, hinsichtlich derer man nur »Volk« ist. Man hat Einfluß auf die Ereignisse, denn ohne Volk ist kein Krieg zu führen, und man nimmt daraus das Recht mitzusprechen, aber wirklich beurteilt und entschieden werden die Dinge doch nur in der unabsehbaren Hierarchie der Instanzen. Und wenn man wirklich die Ereignisse einmal durch sein Wort beeinflusst, so wird daraus nur Schaden entstehen, denn diese Worte sind ja unsachverständige unbeherrscht, wie im Schlafe hingesprochen, und die Welt ist voll von Spionen, welche horchen, Am besten ist in dieser Hinsicht ein ruhiges, würdiges, gegenüber Provokationen unberührbares Wesen. Und Provokation ist ja hier alles, selbst das Gras, in das Sie sich setzen an dem langen Kanal.」(M. 195~196)

「그건 다분히 당신네들의 머리 속에서만 통하는 법률이지요.」

「이제 그 법을 알게 될 테지… 이 봐, 빌렘, 저녀석 법률을 모른다고 하는 주재에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지껄이고 있어.」¹⁰⁾

결국 이 作品은 生活 그 自體가 하나의 〈裁判所〉가 되어 있다. 이 法廷은 神秘的인 法廷과도, 法律的 내지 社會的 道德法이란 意味에 있어서의 人間界의 法廷과도 몇하나 共通되고 있는 點이 없다. 이 法廷은 인생살이의 總體를 뜻한다. 人生살이 全體가 裁判所의 支配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裁判所 안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裁判所도 判決의 規準이 되고 있는 法律 / Gesetz 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裁判所 / unsichtbares Gericht 이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裁判所는 모든 人生의 營爲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裁判하고 있으나 人間的 道德觀念을 規準으로는 하지 않는다. 산다는 것 自體가 有罪며 生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強迫이 罪를 犯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巨大한 裁制組織은 말하자면 영원히 空中에 떠있어 인간이 獨自的으로 무엇을 改革하려해도 그뎨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추락할 따름이며, 한편 이 大組織 自體는 이러한 사소한 放害같은 건 어딘가 다른 場所에서—모든 것이 結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쉽사리 보충할 수 있으며 사실이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그 이상 醜惡적이고 훨씬 더 주의깊게,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기분나쁘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狀態에는 變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¹¹⁾(P. 89)

10) 「Unsere Behörde, soweit ich sie kenne, und ich kenne nur die niedrigsten Grade, sucht doch nicht etwa die Schuld in der Bevölkerung, sondern wird, wie es im Gesetz heißt, von der Schuld angezogen und muß uns Wächter ausschicken. Das ist Gesetz. Wo gäbe es da ein Irrtum?」

「Dieses Gesetz kenne ich nicht.」

「Desto schlimmer für Sie.」

「Es besteht wohl auch nur in Ihren Köpfen.」

「Sie werden es zu fühlen bekommen… Sieh, Willem, er gibt zu, er kenne das Gesetz nicht, und behauptet gleichzeitig, schuldlos zu sein.」(以上 P. 10~11)

11) 「Einzusehen versuchen, daß dieser große Gerichtsorganismus gewissermaßen ewig in der Schwebe bleibt und daß man zwar, wenn man auf seinem Platz selbstständig etwas ändert, den Boden unter den Füßen sich wegnimmt und selbst abstürzen kann, während der große Organismus sich selbst für die kleine Störung leicht an einer anderen Stelle—alles ist doch in Verbindung—Ersatz schafft und verändert bleibt, wenn er nicht etwa, was sogar wahrscheinlich ist, noch geschlossener, noch aufmerksamer, noch strenger, noch böser wird.」(P. 89)

3. 『城』에 있어서의 官廳機構

『訴訟』의 主人公 Josef K.가 그러했듯이 『城/das Schloß』의 主人公 K.도 <침부터 술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히 正面으로 官廳에 對抗>¹²⁾하여 한 사람의 權力者 앞에서 자유로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勝利를 획득하려 했으나 疎外된 空虛한 自由밖엔 얻질 못한다.

「K.에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對人關係는 모조리 중단되고, 물론 지난 어느 때보다도 그는 자유로우며, 보통 때 같으면 그에게는 出入이 禁止되어 있는 이 場所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있다. 이 自由는 스스로 爭取한 것이며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거나, 그를 쫓아내거나, 뿐만 아니라 말을 붙이는 것조차도 용납되어 있지 않다. 허나—이 확신은 적어도 그것에 못지 않게 강했지만—그와 동시에 이렇게 자유로운 것,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侵害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보다 더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¹³⁾

Brod의 말처럼 城이 神의 恩寵의 象徵인지의 與否는 且置해 두고라도 現實으로 城 그 自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隔絶되어 있으며, 마을을 支配하고 있는 官廳機構는 극도로 卑俗하고 腐敗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城에서 내려지는 命令은 完全히 一方的으로 下達되고 있을 뿐 下位上達되는 길은 絶對로 斷絶되어 있음은 이미 序言에서도 言及한 바 있다.

「명령은 불리한 것이나 유리한 것이나 모두 그의 머리위를 지나가 버렸다. 유리한 명령이라도 따지고 보면 결국 불리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모두 그의 머리위를 지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 명령에 간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침묵시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에는 너무도 신분이 낮았다.」¹⁴⁾

12) 「...daß er nämlich von allem Anfang an, ohne Winkelzüge, offen, Aug in Aug, der Behörde entgegentrat.」(P. 142 參照)

13) 「...da schien es K., als habe man nun alle Verbindung mit ihm abgebrochen und als sei er nun freilich freier als jemals und könne hier auf dem ihm sonst verbotenen Ort warten, solange er wolle, und habe sich diese Freiheit erkämpft, wie kaum ein anderer es könnte, und niemand dürfe ihn anrühren oder vertreiben, ja kaum ansprechen; aber—diese Überzeugung war zumindest ebenso stark—als gäbe es gleichzeitig nichts Sinnloseres, nichts Verzweifelteres als diese Freiheit, dieses Warten, diese Unverletzlichkeit.」(S. 91)

14) 「Über ihn hinweg gingen die Befehle, die ungünstigen und die günstigen, und auch die günstigen hatten wohl einen letzten ungünstigen Kern, jedenfalls aber

城의 사람들은 단지 城에 所屬되어 있을 뿐이며,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超越의인 地位를 갖고 우연하게도 늘 그들에게 有利하게 作用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公私가 완전히 混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公務와 私生活이 이처럼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여태 본 일이 없었다. 너무도 뒤범벅이 되어 있어 公務와 私生活이 뒤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¹⁵⁾

한편 마을의 官僚政治 / Bürokratie의 mechanism은 現代國家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形式主義의 完璧性和 人間的 內容의 空虛를 露呈하고 있다.

「官廳業務의 놀랄만한 統一性은 그것이 자칫 存在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유달리 완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¹⁶⁾

「대체로 過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可能性 같은 것은 전혀 計算에 넣지 않는 것이 官廳業務의 原則입니다... 城에는 監督官廳밖엔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過誤를 찾아내는 것이 監督官廳의 役割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過誤같은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사 당신의 경우처럼 過誤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체 누가 그것이 過誤라고 斷定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¹⁷⁾

『訴訟』에서도 <最終적으로 無罪를 宣稱하는 權限은 당신이나 저나 우리들 모두에겐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最高裁判所만이 掌握>¹⁸⁾하고 있듯이, 『城』에 있어서도 下級官吏에겐 事件을 次裁할 權限이 賦與되어 있지 아니하다.

gingen alle über ihn hinweg, und er war viel zu tief gestellt, um in sie einzugreifen oder gar sie verstummen zu machen und für seine Stimme Gehör zu bekommen.」(S. 228)

15) 「Nirgends noch hatte K. Amt und Leben so verflochten gesehen wie hier, so verflochten, daß es manchmal scheinen konnte, Amt und Leben hätten ihre Plätze gewechselt.」(S. 51~52)

16) 「...andererseits lag es an der bewunderungswürdigen Einheitlichkeit des Dienstes, die man besonders dort, wo sie scheinbar nicht vorhanden war, als eine besonders vollkommene ahnte.」(S. 51)

17) 「Es ist ein Arbeitsgrundsatz der Behörde, daß mit Fehlermöglichkeiten überhaupt nicht gerechnet wird... Es gibt nur Kontrollbehörden. Freilich, sie sind nicht dazu bestimmt, Fehler im groben Wortsinn herauszufinden, denn Fehler kommen ja nicht vor, und selbst, wenn einmal ein Fehler verkommt, wie in Ihrem Fall, wer darf denn endgültig sagen, daß es ein Fehler ist.」(S. 56~57)

18) 「...das Recht, endgültig freizusprechen, dieses Recht hat nur das oberste, für Sie, für mich und für uns alle ganz unerreichbare Gericht.」(P. 116)

「대체 官吏가 單獨으로 罪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기껏해야 官廳全體의 이름으로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더우기 관청전체의 이름으로서도 십중팔구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단지 黑白을 가리는 것만이 가능합니다……자기에겐 관계 있는 官廳業務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官吏가 어깨를 움추리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일을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평생 걸려도 이해하시진 못할 테니까요.」¹⁹⁾

「대체 누가, 설령 최대의 努力家라 할지라도, 최소의 사건이나 그것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자기 책상 위에 가지런히 챙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²⁰⁾

『訴訟』에서 〈手續節次가 서서히 進行되어 判決로 바뀌어지는 것〉²¹⁾처럼 『城』의 決定도 어느 사이엔가 내려진다.

「한 案件이 오래동안 검토되고 있을 때 그 검토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 또 나중에 가서는 이미 어디였는지 알 수도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번개불처럼 해결의 서광이 비취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결과적으론 참 옳다고는 하지만 말하자면 제나름대로 그 문제의 끝을 맺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官廳機構가 그 自體로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소한 한 가지 案件때문에 몇해 동안이나 자극을 받고 긴장을 계속하는 동안에 더이상 견디어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官吏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결말을 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官吏 중 누군가가 그 처결을 文書에 기록했든지 아니면 문서에는 쓰지도 않고 그대로 결론을 내려버렸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만 여하튼 이 경우에 어떤 官吏가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 측에선, 이 마을에선 물론 官廳측에서 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²²⁾

19) 「Kann denn ein einzelner Beamter verzeihen? Das könnte doch höchstens Sache der Gesamtbehörde sein, aber selbst diese kann wahrscheinlich nicht verzeihen, sondern nur richten…man suche doch nur selbst die kleinen amtlichen Angelegenheiten, die einen selbst betreffen, winziges Zeug, das ein Beamter mit einem Achselzucken erledigt, man suche nur dieses bis auf den Grund zu verstehen, und man wird ein ganzes Leben zu tun haben und nicht zu Ende kommen.」(S. 181)

20) 「Wer könnte allein und wäre es der größte Arbeiter, alle Beziehungen auch nur des kleinsten Vorfalles auf seinem Schreibtisch zusammenhalten.」(S. 222)

21) 「…das Verfahren geht allmählich ins Urteil über.」(P. 154)

22) 「Wenn eine Angelegenheit sehr lange erwogen worden ist, kann es, auch ohne daß die Erwägungen schon beendet wären, geschehen, daß plötzlich blitzartig an einer unvorhersehbaren und auch später nicht mehr auffindbaren Stelle eine Erledigung hervorkommt, welche die Angelegenheit, wenn auch meistens sehr

따라서 官廳과의 個別接觸이나 折衝은 形式에 불과할 뿐이며, 城에 電話를 걸었을 때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騷音과 노래소리같은 것이 유일한 의사소통기구인양 묘사되고 있다.

「이 떠들썩한 소리와 노래소리같은 것은 이 곳의 電話가 우리들에게 傳達해주는 유일한 울바른 것, 신용할만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城과는 일정한 電話連絡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의 呼出을 연결해주는 中央電話局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쪽에서 전화로 여기서 城안의 누군가를 불러내려고 하면 저 쪽에서는 가장 下級の 여러 과의 전화가 한꺼번에 울립니다. 그렇잖으면 저가 분명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電話器는 電鈴裝置를 斷切해 놓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체의 전화기가 한꺼번에 울리게 되는 겁니다.」²³⁾

그런데 이 城이나 『訴訟』에서의 秘密裁判組織은 얼핏 民衆으로부터 隔絶되어 있는 듯도 하지만 실은 民衆과 無關한 것이 아니라 民衆의 總意라고도 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百姓과 城과의 사이엔 대단한 區別같은 건 없습니다.」²⁴⁾

「裁判所의 事務室은 거의 어느 다락방에도 있습니다.」²⁵⁾

따라서 電話에서 들려오는 騷音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混雜한 虛無이며, 計算을 넘어선 豫測할 수 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끊임없이, 적어도 몽롱하게 느껴지던 世界の 音樂>²⁶⁾이며 世界の 騷音인 것이다. 問題는 이 全體의 소리가 누구나가 다 알고 있

richtig, so doch immerhin willkürlich abschließt. Es ist, als hätte der behördliche Apparat die Spannung, die jahrelange Aufreizung durch die gleiche, vielleicht an sich geringfügige Angelegenheit nicht mehr ertragen und aus sich selbst heraus, ohne Mithilfe der Beamten, die Entscheidung getroffen. Natürlich ist kein Wunder geschehen, und gewiß hat irgendein Beamter die Erledigung geschrieben oder eine ungeschriebene Entscheidung getroffen, jedenfalls aber kann, wenigstens von uns aus, von hier aus, ja selbst vom Amt aus nicht festgestellt werden, welcher Beamte in diesem Fall entschieden hat, und aus welchen Gründen.」(S. 59~60)

23) 「Nun ist aber dieses Rauschen und dieser Gesang das einzige Richtige und Vertrauenswürdige, was uns die hiesigen Telefone übermitteln, alles andere ist trügerisch. Es gibt keine bestimmte telefonische Verbindung mit dem Schloß, keine Zentralstelle, welche unsere Anrufe weiterleitet, wenn man von hier aus im Schloß anruft, läutet es dort bei allen Apparaten der untersten Abteilungen oder vielmehr, es würde bei allen läuten, wenn nicht, wie ich bestimmt weiß, bei fast allen dieses Läutewerk abgestellt wäre.」(S. 63)

24) 「Zwischen den Bauern und dem Schloß ist kein großer Unterschied.」(S. 13)

25) 「Gerichtskanzleien sind doch fast auf jedem Dachboden.」(P. 120)

26) 「...die bisher immer wenigstens zu ahnende Musik der Welt ...」(H. 216 »Er«)

는 것이긴 하지만 실은 누구에게도 把握되지 아니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現代民主社會의 決定手段인 多數決이나 輿論調査와 같은 것은 단순한 便法的 推定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輿論이라는 것이 과연 存在하고 있는지의 與否조차도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 判斷은 그들에겐 未知的 前提, 未知的 意圖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接近할 수가 없다. 일반적 判斷은 보-트나 橋樑도 없는 연못 속의 散步者로 나타난다. 音樂은 들리지만 이 쪽의 소리는 미치지 않는다.」²⁷⁾

때문에 電話로 城과 아무리 交涉하려해도 이러한 方法으로 他人을 相對로 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相對로 하여 싸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全體性과 超越性的 Dilemma 에 의한 結果인 것이다.

「가능한 한 城안의 상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마을의 노동자로 머무르는 경우에 있어서만이 그는 城안의 무엇인가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도 그를 조금도 신뢰해 주지 않는 마을 사람들도 그가 그들의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마을의 住民으로서 그들의 伴侶가 되었을 때는 對話를 시작할 것이다. — 그뻬 城의 상진이나 그 부류들이었다면 영원히 닫혀졌거나 보이지도 않았을 모든 길이 한꺼번에 그의 면전에 열렸을 것임에 틀림없다.」²⁸⁾

「이 官廳이 아무리 잘 組織되어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城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언제나 멀리 떨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더러, K.는 지극히 생생한 신변의 일 때문에, 자기자신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²⁹⁾

27) 「Das allgemeine Urteil aber hat ihnen unbekannte Voraussetzungen, unbekannte Absichten, wodurch es von allen Seiten unzugänglich ist; es gibt sich als Spaziergänger auf der Insel im Teich, wo nicht Boote noch Brücken sind, hört die Musik, wird aber nicht gehört.」(H. 165, Fragmente)

28) 「Nur als Dorfarbeiter, möglichst weit den Herren vom Schloß entrückt, war er im stande, etwas im Schloß zu erreichen, diese Leute im Dorfe, die noch so mißtrauisch gegen ihn waren, würden zu sprechen anfangen, wenn er, wo nicht ihre Freund, so doch ihr Mitbürger geworden war — dann erschlossen sich ihm gewiß mit einem Schlag alle Wege, die ihm, wenn es nur auf die Herren oben und ihre Gnade angekommen wäre, für immer nicht nur versperrt, sondern unsichtbar geblieben wären.」(S. 24)

29) 「...die Behörden hatten, so gut sie auch organisiert sein mochten, immer nur im Namen entlegener, unsichtbarer Herren entlegene, unsichtbare Dinge zu ver-

이처럼 主人公 K.는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鬭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城안의 動情을 살피려 안달하지만 끝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愚弄만 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最終的 決定權을 지니는 것은 全體의 밑바닥에서 우리나라오는 全體의 소리인가, 아니면 위에서 들려오는 위로부터의 소리인가? 설사 이 두 소리가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면 치더라도 全體의 소리를 代表하는 權利를 갖는 것은 대체 官吏인가, 아니면 一般民衆인가?고 하는 問題가 Dilemma로 提示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民衆의 소리는 요령부득한 騷音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官吏의 命令 또한 별다른 의미도 없이 내려지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Brod의 말처럼 城이 恩寵의 組織인지, K.의 主張처럼 僞法의 組織인지 그 眞否를 作品中에서 斷定해낼 수는 없지만 城의 貴族의 超越의 地位에는 西歐世界에 있어서의 기독교 僧侶의 地位를 聯想케 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城을 神聖한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官吏들이 너무도 人間的인 것이며, 또한 밍살스럽고 외설되게 描寫되어 있다.

적어도 城의 官廳機構가 마을에 작용하는 바 그 作態는 人間社會의 Ideologie가 現實的으로 民衆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속임수에 比喩되고 있는 것이다. <歷史는 대개 官廳의 일로 만들어져 있다>³⁰⁾는 Kafka의 말처럼 太古때부터 人類를 現實的으로 支配해온 人間關係의 中樞機構는 이와 같은 正體를 알 수 없는 mechanism으로서 官廳機構는 그 基礎 위에 세워진 板子집과도 같은 單純한 連絡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正義라든가 理想이나 良識과 같은 美名의 假面을 쓰고 전혀 罪가 없는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수상쩍은 것으로 古代人들은 神話나 祭祀라는 타부로, 中世人들은 宗教나 道德이라는 權威로, 近代人들은 哲學이나 政治라고 하는 理論으로 이를 擬裝해 왔으나, 批判的 知性에 의해 그 擬裝이 剝奪되게 되면 人力으로는 어쩔 수 없는 自己矛盾의 이고도 심술긋은 人間性的 mechanism이 여지없이 暴露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人間生活의 大單位化는 이 녹슬은 鐵骨의 怪物을 문어발식의 無數한 末端組織을 갖춘 完全自動化된 大企業과도 같은 複雜多端한 巨大한 mechanism으로 순식간에 異常成長시켰던 것이다.

teidigen, während K. für etwas lebendigst Nahes kämpfte, für sich selbst.» (S. 51); 또한 이에 대한 Emrich 教授의 見解를 빌면,

「城의 官廳에 대한 K.의 鬭爭은 단지 이 戰線의 陣地에서만 說明할 수 있다.－ 실제로 이 戰線의 陣地에서 官廳에 대한 K.의 일종의 優越性을 推論할 수 있다. 예컨대 官吏들은 K.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으며 K.가 밖에 있는 한 자기들의 방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결과 K.가 말하자면 戰場을 支配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K.쪽은－ 이에 대해선 여하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이 支配를 도리어 官吏들과의 連繫의 喪失, 따라서 또한 자신의 낙약함, 敗北라 생각한다 하더라도.」(前出『Emrich』 85 參照)

30) 「Sie (die Geschichte) wird ja meistens von Amtshandlungen gebildet.」(J.150)

4. 官僚政治

여기서 Kafka가 말하고 있는 法/Gesetz(法律)과 그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그의 見解는 어떠한가 하는 問題가 提示되기에 이른다. Kafka가 描寫하고 있는 官僚政治 / Bürokratie는 封建主義的인 것으로서 現代의 民主主義的인 그것과는 다르다고 主張하는 이도 없지 아니하다. 실제로 Kafka가 封建主義時代的인 要素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法律의 問題 / Zur Frage der Gesetze」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法律은 一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支配하고 있는 少數의 貴族集團의 秘密인 이러한 낡은 法律이 遵守되고 있음을 우리 疑心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法律에 의해 支配되는 것은 形言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法律은 침부터 貴族들을 위해 確立된 것으로 貴族들은 法律의 外側에 있는, 때문에 法律은 오직 貴族들의 손에 委任된 느낌을 露呈하고 있다. 물론 이 點엔 智慧가 內包되어 있다.—古法의 智慧를 疑心할 者 있을까?—허나 거기에 우리의 괴로움도 있다. 다분히 그것은 不可避한 것이다.」³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人間을 規定하는 法은 <우리를 支配하는 少數 貴族集團의 秘密>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 法의 特性이 그 內容을 秘密히 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³²⁾는 事實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法은 定式化할 수 없으며 許容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定式化된 순간에 참다운 法은 그 特性을 喪失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內容마저도 喪失해 버리는 것이다. 把握할 수 있는 規約이라는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點에야말로 이 참다운 法의 本質이 있는 것이다.

참다운 法은 어디까지나 法律의 外側에 있는 貴族의 手中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逆說的인 確認이 說明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法律은 침부터 貴族들을 위해 定해진 것이기 때문

31) 「Unsere Gesetze sind nicht allgemein bekannt, sie sind Geheimnis der kleinen Adelsgruppe, welche uns beherrscht. Wir sind davon überzeugt, daß diese alten Gesetze genau eingehalten werden, aber es ist doch etwas äußerst Quälendes, nach Gesetze sind ja von ihrem Beginne an für den Adel festgelegt worden, der Adel steht außerhalb des Gesetzes, und gerade deshalb scheint das Gesetz sich ausschließlich in die Hände des Adels gegeben zu haben. Darin liegt natürlich Weisheit—wer zweifelt die Weisheit der alten Gesetze an?—, aber eben auch Qual für uns, wahrscheinlich ist das unumgänglich.」 (B. 68)

32) 「...denn der Charakter dieser Gesetze verlangt auch das Geheimhalten ihres Bestandes.」 (B. 68)

에 貴族은 이미 法律에 의해 規定되지 않으며, 自由라는 點에선 自身이 法律과 同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貴族은 自身이 곧 法이며, <貴族의 行爲가 곧 法律인 것이다.>³³⁾ 그 밖의 法律은 아마도 存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암담한 이 展望은 언젠가는 그 傳統과 그 研究가 말하자면 흉남히 終結되어 모든 것이 밝혀지고 法律이 民衆들만의 것이 되고 貴族이 消滅할 때가 오리라고 確信함으로써만이 분명해진다 … 法律에 대한 信仰과 함께 貴族을 배척할 勇氣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政黨은 發生되지 않는다. 이런 칼날위에 우린 生活하고 있다. 어떤 作家가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린 적이 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疑心할 여지 없는 唯一한 法律은 貴族이다. 이 唯一한 法律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려야 할까고」³⁴⁾

그러나 Kafka가 말하고 있는 이 貴族이라는 것이 위에서처럼 封建時代의 支配者만을 指稱하는 것일까? 우리들 人間의 心中에 潛재해 있는 封建性은 民主主義社會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消滅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疑問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Kafka는 法律이 存在하는 곳에 반드시 法위에 서서 法을 支配하는 貴族層과 法の 支配를 받는 被支配階級, 卽 民衆이 있다는 걸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를 뒷받침하는 말들이 『對話』에 無數히 나타나 있다. 勞動者들의 進歩行進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한 自覺과 自信을 갖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支配하고 그것으로 世界를 支配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背後엔 書記나 官吏, 職業政治人等, 온갖 現代의 君主(支配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權力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³⁵⁾

33) 「Was der Adel tut, ist Gesetz.」(B. 69)

34) 「Das für die Gegenwart Trübe dieses Ausblicks erhellt nur der Glaube, daß einmal eine Zeit kommen wird, wo die Tradition und ihre Forschung gewissermaßen aufatmend den Schlußpunkt macht, alles klar geworden ist, das Gesetz nur dem Volk gehört und der Adel verschwindet… Eine Partei, die neben dem Glauben an die Gesetze auch der Adel verwerfen würde, hätte sofort das ganze Volk hinter sich, aber eine solche Partei kann nicht entstehen, weil den Adel niemand zu verwerfen wagt. Auf dieses Messers Schneide leben wir. Ein Schriftsteller hat das einmal so zusammengefaßt: Das einzige, sichtbare, zweifellose Gesetz, das uns auferlegt ist, ist der Adel und um dieses einzige Gesetz sollten wir uns selbst bringen wollen?」(B. 69)

35) 「Die Leute sind so selbstbewußt, selbstsicher und gut aufgelegt. Sie beherrschen die Straße und meinen darum, daß sie die Welt beherrschen. In Wirklichkeit irren

「革命이 蒸發하고 나면 남는 건 새로운 官僚政治의 殘滓뿐입니다. 虐待받은 人類의 사슬은 官廳用紙로 되어 있습니다.」³⁶⁾

그는 資本主義도 容納하지 않았으며, 能率主義와 分業이 人間을 奴隸化하는 그 以上の 것이라 看做하고 있다.

「資本主義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미치는 從屬關係입니다. 모든 것은 從屬되고 모든 것이 束縛되어 있습니다. 資本主義는 世界와 靈魂과의 하나의 狀態입니다.」³⁷⁾

「이러한 暴力的인 不法을 行하면 결국 惡에 의한 奴隸化밖엔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모든 被造物中 가장 崇高하고 또한 가장 犯하기 어려운 部分인 時間이 不純한 企業的 利潤의 그물 속에 밀려들어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단순히 被造物만이 아니고, 더구나 그 構成要素인 人間이 오염되고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能率化된 生活은 可憐할 만한 咀呪며, 거기선 待望의 富와 利益대신에 기근과 비참만이 增大할 따름입니다. 그게 進歩라는 겁니다.」³⁸⁾

「世界滅亡에의」(進歩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確信을 갖고 말할 수가 있다면 좀 좋겠읍니까만, 허나 뭣이든 確實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든지, 중얼거린다든지 탄식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生의 콤베어가 사람을 어디론가 싣고 잡니다만 -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는 겁니다. 人間은 生物이기 보다는 - 보다 物的이며 對象

sie doch. Hinter ihnen sind schon die Sekretäre, Beamten, Berufspolitiker alle die modernen Sultane, denen sie den Weg zur Macht bereiten.」(J. 136)

36) 「Die Revolution verdampft, und es bleibt nur der Schlamm einer neuen Bürokratie. Die Fesseln der gequälten Menschheit sind aus Kanzleipapier.」(J. 137)

37) 「Der Kapitalismus ist ein System von Abhängigkeiten, die von innen nach außen, von außen, nach innen, von oben nach unten und von unten nach oben gehen. Alles ist abhängig, alles ist gefesselt. Kapitalismus ist ein Zustand der Welt und der Seele.」(J. 170)

38) 「Bei so einem gewaltigen Frevel kann zum Schluß nur die Knechtung durch das Böse herauskommen. Das ist natürlich. Der erhabenste und am wenigsten abtastbare Teil aller Schöpfung, die Zeit, wird in das Netz unreiner Geschäftsinteressen gepreßt. Damit wird nicht nur die Schöpfung, sondern vor allem der Mensch, der ihr Bestandteil ist, befleckt und erniedrigt. So ein vertaylorisiertes Leben ist ein grauenvoller Fluch, aus dem nur Hunger und Elend an Stelle des gewünschten Reichtums und Gewinnes erwachsen können. Das ist ein Fortschritt...」(J. 132)

인 겁니다.»³⁹⁾

그는 러시아 革命에 대해서도 否定的인 見解였다.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完全한 正義世界를 建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宗教的 事件입니다.»⁴⁰⁾

「戰爭과 러시아革命과 全世界의 慘狀이 제겐 惡의 洪水처럼 생각됩니다. 그건 混沌입니다. 戰爭이 混沌의 毒을 얻 것입니다. 人間的 實存의 外部的 補助機構가 崩壞되어가는 거지요. 歷史的 事件은 이미 個人에 의하여 醜어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群集에 의해 간신히 醜어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걸어 채이고 壓迫받고 內동맹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歷史를 受動的으로 甘受하는 겁니다… 政治運動은 우리에게서 直觀의 可能性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의 意識은 좁혀집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生命을 잃지 않는에도 意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자신이 獨裁者인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乞人이 되는 겁니다.»⁴¹⁾

大衆의 水準이 個個人的 意識에 依存한다면 現代人(大衆)의 水準이 높아지기는 커녕 되려 低下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省察 29」 및 『Milena에의 便紙』에서 Kafka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主人이 되려고 짐승이 主人으로부터 채찍을 빼앗아 自身을 채찍질 한다. 그러나 그것이 主人의 채찍에 하나의 새로운 매듭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한 幻想이라는 것 모

39) 「Zum Weltuntergang」

「Wenn man das wenigstens mit Sicherheit sagen könnte. Es ist aber nichts sicher. Darum kann man nichts sagen. Man kann nur schreien, stammeln, keuchen. Das laufende Band des Lebens trägt einen irgendwohin—man weiß nicht wohin. Man ist mehr Sache, Gegenstand—als Lebewesen.»(J. 132)

40) 「Die Menschen versuchen in Rußland eine vollkommen gerechte Welt aufzubauen. Das ist eine religiöse Angelegenheit.»(J. 136)

41) 「Der Krieg, die Revolution in Rußland und das Elend der ganzen Welt erscheinen mir wie eine Flut der Bösen. Es ist eine Überschwemmung. Der Krieg hat die Schleusen des Chaos geöffnet. Die äußeren Hilfskonstruktionen der menschlichen Existenz brechen zusammen. Das geschichtliche Geschehen wird nicht mehr von einzelnen, sondern nur noch von den Massen getragen. Wir werden gestoßen, gedrängt, hinweggefegt, Wir erleiden die Geschichte…… Die Bewegung nimmt uns die Möglichkeit des Schauens. Unser Bewußtsein wird verengt. Ohne daß wir es merken, verlieren wir die Besinnung, ohne das Leben zu verlieren…… Wir alle leben so, als ob wir Alleinherrscher wären. Dadurch werden wir zu Bettlern.»(J. 143~144)

르고 있다。」⁴²⁾

그의 말처럼 現代人이 이러한 自己欺瞞에 의하여 飼育된 家畜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斷言할 수 있을까? 不幸한 奴隸는 解放되기 위하여 언젠가는 蜂起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幸福한 奴隸나 허수아비 로봇도 그들에게 영원히 救濟받을 때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Kafka가 말하고 있는 이 官僚政治는 Prag의 當時의 社會相의 描寫라든가 Nazi나 Stalin 體制의 豫言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그 어떤 숨겨진 法에 바탕을 둔 人類共通의 基本的 現象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나의 內部的 官廳〉⁴³⁾이나 마음 속에 있는 法에 結付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人間은 제각기 마음 속에 이 官廳機構의 出張所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官僚政治는 部分的인 改善이 言語로는 可能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개개의 細目에 대해 改良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 허나 이걸 어렵게는 미신이지만 — 기껏 장래의 경우를 위해 얼마간 도움이 될 정도의 일로 언제나 복수하려는 官吏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되려 해야 할 수 없는 損失을 당할 것이다。」⁴⁴⁾

이를 미루어 官僚政治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둬으로써 그것이 最善策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5. 結 語

「이 官廳이라고 하는 器機, 이 精巧하고 언제나 무엇인가 균형을 잡으려 꺾하고 있는 樂器를 演奏하는 技術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 그 技巧의 要領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樂器自體를 소리나게 하는 것, 그 마저 자신의 現世의 體重에 의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樂器가 절로 소리나게 強制하는 것

42) 「Das Tier entwindet dem Herrn die Peitsche und peitscht sich selbst, um Herr zu werden, und weiß nicht, daß das nur eine Phantasie ist, erzeugt durch einen neuen Knoten im Peitschenreimen des Herrn.」(H. 32 및 M. 186~187)

43) 「In meiner Kanzlei」(T. 420, 1922年 2月 12日 日記 參照)

44) 「Selbst wenn es möglich wäre, Einzelheiten zu verbessern — es ist aber ein unsinniger Aberglaube —, hätte man bestenfalls für künftige Fälle etwas erreicht, sich selbst aber unermesslich dadurch geschadet, daß man die besondere Aufmerksamkeit der immer rachsüchtigen Beamten erregt hat.」(P. 89)

이었다。」⁴⁵⁾

城의 官吏가 맘대로 잠자는 일이라든지, 秘書나 村長, 『訴訟』의 辯護士가 침대에서 事務를 보는 따위는 官僚政治의 惰性的 性格을 잘 나타내고 있는 實例라 할 수 있다.⁴⁶⁾ 그런데 그는 官吏에 대한 엇갈린 表現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實例를 「第五 노트」와 『對話』에서 찾아 보면,

「난 市廳官吏다. 市廳官吏란 참으로 멋이 있다. 일은 없는 거나 같으며 俸給은 충분히 받고 있다. 餘暇는 얼마든지 있다. 市内 어디서든 威勢堂堂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榮譽를 죄다 官廳의 고양이에게 먹여주고 싶다.»⁴⁷⁾

「얼핏 보기에는 官吏가 어딘지 모르게 보다 높고 보다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건 바로 外觀上的 것일 따름이지요. 실제로 남들보다 孤獨하지요. 때문에 남들보다 不幸한 겁니다. 그게 全部지요.»⁴⁸⁾

그러나 두말할 나위도 없이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이 官僚政治의 城을 民衆의 廣場으로 바꾸려 企圖해야 하며, 民主的인 法은 이 廣場에 있어서의 滿場一致의, 나아가 共通意志에 起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개의 回想/Forschungen eine Hundes, 에서도 나타나는 바, <그것은 개의 法則이며 滿場一致의 犬族의 決議이다.>⁴⁹⁾ 그런데도 실제로 人間生活에 대한 決定이 행해지는 곳은 官僚政治의 城塞라든가 어쨌든 大衆으로부터 隔絶된 密室이며, 그곳은 그것을 조종하는 少數의 實力者들의 胸中에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이 宣傳에 의해 民衆에 傳達되어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반복될 따름이며, 실제로 廣場에서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無辜한 民衆들의 축제놀이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討議에 의한 多數決이라는 民主的 方式도 일단 制定되어 그것이 固定化되어 버

45) 「Er verstand es ja schon auf diesem behördlichen Apparat, diesem feinen immer auf irgendeinen Ausgleich bedachten Instrument zu spielen. Die Kunst bestand im wesentlichen darin, nichts zu tun, den Apparat selbst arbeiten zu lassen und ihn zur Arbeit nur dadurch zu zwingen, daß man unfortschaffbar hier stand in seiner irdischen Schwere.」(S. 273, Die vom Autor gestrichen Stellen, Zu Seite 52, Zeile 40)

46) S. 36, S. 52f. 및 P. 74 ff. 參照.

47) 「Ich bin Beamter beim Magistrat. Wie schön ist es, Beamter beim Magistrat zu sein! Wenig Arbeit, genügender Gehalt, viel freie Zeit, übermäßiges Ansehen überall in der Stadt... und wollte, wenn ich könnte, diese ganze Würde der Bürokatze zum Auffressen geben.」(H. 97)

48) 「Anscheinend ist man etwas Höheres, Besseres, aber das ist eben nur Ausschein In Wirklichkeit ist man bloß einsamer und darum unglücklicher. Das ist alles.」(J. 29)

49) 「Das ist... Hundegesetz, ist einstimmiger Volksbeschluß.」(B. 189)

리면 그 自體가 일종의 mechanism으로서 官僚致治의 手段으로 化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에 대한 Kafka의 不信의 根底에는 〈單純한 方式的인 것의 可恐性〉⁵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政治的인 것에 관해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물론 缺點입니다. 저도 그걸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허나 제겐 缺點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이 제게서 점점 멀리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⁵¹⁾

官僚政治의 mechanism 밖에 있는 孤獨한 人間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通常 人間社會와는 다른 別個의 共同體 속에 속하며 또다른 法에 支配되는, 다시 말해서 異邦人일 뿐 아니라 어쩌면 異法人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Er」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전에는 그는 記念할 만한 그룹의 一員이었다... 지금은 그 그룹이 解體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가 그 그룹에서 離脫했거나로서 그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젠 옛날의 직업에도 관계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조차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다름아닌 이 忘却 때문에 일종의 憂愁, 不確實性, 不安이 現在를 흐리게 한다. 지나간 時代의 일종의 憧憬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憧憬은 生命力의 中대한 要素거나, 아니면 아마도 生命力 그 自體이다.>⁵²⁾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生活때문에 살고있는 건 아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思考때문에 생각하는 건 아니다. 마치 그는 어느 家庭의 強制下에 生活하고 思考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家族自體는 실상 生活力이나 思考力이 지나치게 旺盛한 것 같지만 그 家族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法에 있어서 形式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이 未知의 家族과 未知의 法때문에 그는 헤어날 수가 없다.>⁵³⁾

50) 「Das Grauenhafte des bloß Schematischen.」(T. 273, 1914年5月)

51) 「Ich verstehe nichts von politischen Dingen. Das ist natürlich ein Mangel, den ich gerne beseitigen möchte, ich habe aber so viele Fehler! Die allernächsten Dinge fliehen vor mir immer mehr und mehr in die Ferne.」(J. 143)

52) 「Er war früher Teil einer monumentalen Gruppe... Nun ist die Gruppe längst aufgelöst oder wenigstens er hat sie verlassen und bringt sich allein durchs Leben. Nicht einmal seinen alten Beruf hat er mehr, ja er hat sogar vergessen, was er damals darstellte. Wohl gerade durch dieses Vergessen ergibt sich eine gewisse Traurigkeit, Unsicherheit, Unruhe, ein gewisses die Gegenwart trübendes Verlangen nach den vergangenen Zeiten. Und doch ist dieses Verlangen ein wichtiges Element der Lebenskraft oder vielleicht sie selbst.」(B. 218~219)

53) 「Er lebt nicht wegen seines persönlichen Leben, er denkt nicht wegen seines persönlichen Denkens. Ihm ist, als lebe und denke er unter der Nötigung einer

그렇다면 Kafka가 말하고 있는 이 법이란 대체 어떤 법일까? 그의 作品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법은 神聖不可侵의 眞法인가, 아니면 K.의 主張처럼 僞法인가 하는 疑問으로 이어진다. 만약 僞法이라 한다면 어디엔가 眞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人間이 現實에서 接觸할 수 있는, 現實적으로 直接 作用할 수 있는 법은 바로 이 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싫든 좋든 우리 이 법을 認定할 수밖에 다른 道理는 없는 것일까? 「世界의 法과 天國의 警察은 어디에 있을까?」⁵⁴⁾고 하는 Kafka의 疑問은 이 點에 있어서 그의 수수께끼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略 字 表〉

- P. = Der Prozeß
 S. = Das Schloß
 H.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B. =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T. = Tagebücher 1910~1923.
 M. = Briefe an Milena
 J. = Gespräche mit Kafka, Aufzeichnungen und Erinnerungen
 Emrich = Wilhelm Emrich :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參 考 文 獻〉

- Franz Kafka : Der Proze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Ders. : Das Schlo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Ders. :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n
 in 7 Bä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Bd. 5 : Beschreibung eines Kampfes, Novellen, Skizzen, Aphorismen aus dem
 Nachlaß.
 Bd. 6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Familie, die zwar selbst überreich an Lebens- und Denkkraft ist, für die er aber noch irgendeinem ihm unbekanntem Gesetz eine formelle Notwendigkeit bedeutet. Wegen dieser unbekanntem Familie und dieser unbekanntem Gesetze kann er nicht entlassen werden.」(B. 219)

54) 「Und wo sind die Weltgesetze und die ganze Polizei des Himmels?」(M. 50)

24 1986年7月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21輯

Bd. 7: Tagebücher 1910~1923.

Ders.: Briefe an Milena, Hg. von Willy Haas,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Gustav Janouch: Gespräche mit Kafka, Aufzeichnungen und Erinnerung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Wilhelm Emrich: Franz Kafka, siebente unveränderte Auflage,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Walter Benjamin: Schriften, Bd. 2: Franz Kafka,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55.

